

오용부 본 <초공본풀이>

- 일시 : 2018. 08. 18

<들어가는 말미>

날은 어느 전 날이오며, 들은 어느 전 들입네까. 수년 장네 가르난 무술년입네다.
들은 유월 영청입네다. 날은 브름날입네다. 사라봉 묘충사 안네 제주도 사단법인 큰
곳 십삼호 사무실로 오늘 열두본풀이 행 올리젠 허난,
가지 높은 신전집이 설련 돼고 지에 너른 절당 집입네다.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
포 땅입네다. 유저 생인질입네다. 쟁저 생인질입네다. 유저낭은 비어단 마흔으담 초
간주를 설련허고, 탕저낭은 비어단 서른으담 이간주를 설련허고, 신평낭은 비어당
쓰물으담 고무성 상간주를 설련허고, 브름 분다 브름 뚜벽. 뜻 불어 뜻 뚜벽이로구
나. 안으로 몸받은 연양당주 삼시왕 삼하늘 설련허영 잇습네다. 오늘 이 사무실로
허영 열두본풀이 행 올리젠 허난, 당주전에 몸 받은 조상님네가 다 합이 동참허영
즈순 머릿전에 운둔협서. 오늘은 초공난 수신 신평어 올리저 본산국을 신평건 난산
국더레, 난산국을 신평건 본산국더레 느려삽서허영. 초공 상시당 임전국 하나님이
로구나.

성진녁 웨진녁, 천하임전국, 지에짐전국. 성진녁은 황금산 도산땅에 여례화주 추접
선생님. 왕대월산 금하늘 받이 번고 줄이 번던 노가단풍즈지명왕애기씨로구나. 천하
임전국 대감님광 지에짐전국 부인님네 남녀간에 부배간을 무어신디. 유기전담 줍데
다. 하늘 아래 거부제로 살앗구나. 이십 쓰물 서른 삼십 서른이 돼여도 슬하엔 즈식
이 없언 무유왕 허십데다.

흐를 날은 천하 임전국 대감님이 일천선비, 일만선비 골패바둑 두는디 강, 혼 폰 두
폰, 내기헤연 돈은 문딱 따가난 걸추현 선비가 허는 말이

“아이고, 임전국 대감님아, 그 돈을 다 땅 가민 아들이 잇영 먹을거짜, 딸이 잇영
줄거젠.”

허난, 그 말 대답 아니헤연. 두단 바둑 놓아될 일어산 집드레 느려사단보니, 높은
낭에 새, 가막새들 오조조 허연 베려보난, 말 모른 영미새덜도 새끼 까놓안 먹일 물
어단 주없구나. 느려사단 보니, 일천대금 황금전 황천대금 웃음소리가 난, 웃음소리
쫓아앗영 간 보난 비주리초막살이 잇엇구나. 손가락에 춤을 불랑 창고땅을 터주완
베려보난 얻어먹는 계와시 덜이로구나. 아이새끼 하나 놔 놓아 어명신디 잇인 애기
아방신디 가가민 황천대금 웃음소리, 어명신디 잇인, 아방신디 잇인 애기 어명신디
가가민 황천대금 웃음소리가 나는구나. 얻어먹는 계와시덜도 영 아이새끼 하나 나
놓안 웃음소리가 난다. 나도 집이 가민 웃을 일이 잇일건가.

구들러레 들어 강 앓아가난 지에짐전국 부인님이 안상록이 도염칠반 상에 밥 혼상
출련.

“늦인덕수정하님아, 들렁오라.”

들어간,

“이밥 먹읍센.”

허난

“아이고, 난 밥 생각이 엇수다.”

“무사 경 허엿우과.”

영 하도 신세 먹어가난,

“이 밥을 먹영 봅서 웃을 일이 잇입네덴.”

허난, 밥을 먹어놓고 밥상을 물렸고나. 안상록이 앞땃자 문을 올라간다, 은진장판
풀앗구나. 술아 만단지로구나. 은단평에 서단마깁 막안 춤실 즐라뉘언 이레 동글 저
레 동그려도 웃음소리가 아니 납데다.

흐를 날은 동계남은상저절 서계남은중절 남계남은농농절 북하산은 미아안동절에 절
간 지권 대스님네가 당도 파락 절도 파락이 웨니, 권제를 산문 받아당 헌당 헌절을
수굴허젠. 흐 침 둘러 굴송낙 두 침 둘러 비랑장삼, 백과염주를 목에 걸고 지곡성드
레 권제받으레 느려산다. 각리각리(各里各里) 촌촌(村村) 동으로 들민 서으로 나고,
서으로 들민 동으로 나곡. 웨로 받을 딴 흠으로 받으멍 텡기단보난, 천하임전국 대
감님네 먼 올레 들어사멍

“소승은 절이 뵈네다.”

권제삼문 내보넙서. 천하임전국 대감, 지에짐전국 부인님네

“늦인덕수정하님아, 권제를 거렁오라.”

은분치에 도곰 멀런 권절 거렁오란.

“양, 권절 받아당 무시거예 씩네까?”

“헌당 헌절을 수릴 허고, 멍(命) 없는 자 멍(命)을 주고, 복 없는 자는 복을 주고,
생불이 없는 자는 생불을 줍네덴.”

허난, 권절 내멍 늦이 들렁 높이 스프르. 권절 내난. 대스님은 권절 반양 돌아사젠
허난

“대스(大師)님아, 소스(小師)님아, 우리 팔자소주나 둘러봅서. 남녀 간에 시집 장계
강 이십 쓰물 서른 삼십이 웨어도 애기가 엇영 무으헤엿수다. 애기가 엇인 팔자엔
허민 포기허쿠덴.”

허난. 오양팔광 단서육갑을 둘러받아 천기를 둘러보니

“아이고, 애기 엇인 무으렌 허는 팔자가 아니우다.”

“어떻허민 웨쿠과?”

“높고 높은 절간 법당에 강 수록이나 드러봅서.”

영허난, 대스님은 첩첩 산더레 올라간다.

천하임전국, 지에짐전국 부인님은, 강뵈디는 강나록 수답에는 수나록 모답에는 모나
록을 싱거간다. 상백미 중백미 웨백미 일천섬을 출렛구나. 세미녕 세마패 물멧지 쟁
멧지 돌잇베도 구만장 가삿베도 구만장 걸렛베도 구만장 마밭에 시꺼놓고 저마당에

수릴두고, 올레 막음 들은 첩첩산중더레 올라갑데다.

올라가단 뵈려보니, 싱근 돌에 물팡돌이 잇엇구나. 그디 앓안 쉬노렌 허난 높은 절간법당에 키우는 네눈이반동개가 디리쿵쿵 내쿵쿵 주껴가난 대스님이 소스중안티레 허는 말이

“소스중아, 저레 나고 보라. 어디 양반이 불공허레 오랐이니.”

“어떻허난 양반인증 알겠습네까?”

“네눈이반동개가, 뵈려보라. 양반은 오라가민 네발 짚영 주꾸고, 중인은 오라가민 두발 짚영 주꾸고, 천민은 오라가민 드러누영 주꾼다. 저거보라 네팔 네손 몬 짚영 주겘이넨.”

허난. 소스중이 느려산다. 느려사단 보난 싱근돌에 물팡돌에 천하임전국 대감 지에 짐전국 부인님이 쉬엿구나.

“소승은 절이 뵈네다. 어디서 나오신 양반입니켤?”

허난.

“우리는 천하임전국, 지에짐전국, 너희 절간법당에 영계실력허텐 허난 불공허레 오랐구나.”

“어서 오십서.”

영 허영 이제 청허여간다. 막음수릴 두어간다. 앓안 간 거 금분치에 문딱 도금 물려 올려간다. 안서랑 밧서랑을 출려간다. 일광 출려간다. 상탕에 메를 지고, 중탕에 모 옥허고, 하탕엔 수족 시견. 백일 기돌 드러간다. 돌아올땐 일광님 지어갈땐 월광님 옥계천신님도 사나 사냥.

이제 백일째 되는 날은 절간 지컨 대스님이 허는 말이,

“아이고, 천하임전국 대감님아, 지에짐전국 부인님아, 오늘이 백일째 되는 날이우다. 대추낭 꽃가마 은저울대로 저울영 백근이 차민 아들을 나고, 백근이 안차민 딸을 남네다.”

그때에는 이제 대추낭 꽃가마 은저울대로 저울이난

“백근이 아니찬, 아흔아홉 근량백이 아니뵈었우다.”

“엇인 사름이 비곡석을 굴립니까?”

그때에는 대스님이 허는 말이,

“어서 이제 느려상 합공일을 무읍센.”

허난, 부처님전 하직문안 허고, 대스님전 하직문안, 마당수리 올레막음 두어된 첩첩산중드레 느려사는 질입네다.

느려사단보니 헤는 서산에 지어 짚은 야사삼경이 뵈엇구나. 어욱패기에 의질혜영 치멜 돌런 무정 눈에 줌이 들엇구나. 무정 눈에 줌이 드난 앞니명엔 헛님이여 뒷니명엔 들님이여. 물 아래 옥돌 곱은 애기씨 제비새 젓늘개 곱은 애기씨가 엄뜻허난 쿼안티레 들어오랐구나. 깨난 보난 꿈이로구나. 해몽산에 강 해몽을 헌다. 합공일을 받안 부베간을 무읍데다. 부베간을 무언 지에짐전국 부인님이 석덜 백일이 웨어가난 어떻허난 떡단 밥에 굴내가 나고, 떡단 국에는 장칼내가 나고, 떡단 물에는 펄내

가 나고, 입단 옷엔 뚝내가 나는구나. 으서일곱 들 열 들이 차난, 애긴 나는 게 여
즈식이 솟아나는구나. 솟아나니,

“늦인덕수정하님아, 저레 나고보라. 애기 이름을 지어사 헐 거 아니냐.”

나고보난. 아이고,

“노가단풍이 지었우다. 시는 즈축시가 돼었우다.”

경 허건들랑 이 애긴 우리 절간 법당에 강 수록 드령 나난. 노가단풍즈지명왕애기
씨로 이름 생명 지와가는구나.

흔설 두설 예스일곱 설 넘어간다. 상다락에 노념헌다. 중다락에 노념헌다. 하다락에
노념헌다.

흐를 날은 잇이난 편지장이 오락가락 허난 천하베슬 지하베슬 살레옵센 허난, 아이
고, 부베간이 근심이 돼여간다. 비록 딸즈식이주마는 우리안틴 절간에 강 수록드령
귀한 즈식이로구나. 아바님은, 아들 ㄹ뜨민 들양 강 책실로나 삼주만은 아이고, 딸
즈식이난 들양 가지도 못허고. 아바님이 들고가져 어머니가 그리웁고. 어머니가 들
양 가젠 허난 아바님이 그리왕,

“늦인덕수정하님아, 이레 들어오라.”

들어가난,

“우리 천하베슬 지하베슬 살아올 동안 이 아기씨 궁 안에서 먹고 입고 행공발신허
영 잘 키웠이민 강 오랑 종 문셀 엇어줍이엔.”

허난.

“어서 걸랑 기영협센.”

허난, 영 하늘옥황 도성문 올려옵던 천왕낙화금정옥술발 들러받앙 흔 번을 둘러치
니 천하가 운동헌다. 두 번을 둘러치니 지하가 운동헌다. 삼세 번 둘러치난 마흔으
답 모람장 서른으답 빗골장 쓰물으답 고무살장 상거슴 통췌가 왈강실강 증가지어가
는구나.

천하임전국 대감님네 지에짐전국, 천하베슬 지하베슬 살레 올라느립데다.

정하님은 이 애기씨를 궁안에서 밥을 주고 궁안에서 먹고 입고 행공발신 헤여가는
구나.

흐를 날은 높은 절간법당에 일천선비들이 바둑 장길 뛰단 보난 일출 동경이 떴구
나.

“야, 저 들은 곱기도 곱다만은 가운데 개수나무나 박혔구나.”

“그게 아니고.”

소스중이 나사명 허는 말이,

“저 들보단 더 고운 애기씨가 금시상에 컷수다.”

“누게니?”

허난,

“우리 절에 완 수록드려 난 애기씨가 노가단풍즈지명왕애기씨, 금년 열다섯 십오센
디 명이 즐란 아니돼없우텐.”

허난,

“경 허결랑 너가 강 본메 본쩍 두어 올 수 잇겠느냐?”

“경 험셴.”

허엇구나. 소스중은 남방사주 봉에바지 서방사주 접저고리 호피미녕 두루막 투전으로, 혼침 둘렁 굴송낙 두침 둘렁 비랑장삼 백과염줄 목에 걸고 아강베포 지포 찰리 웨오 느다 메연 금시상더레 권제 받으레 소곡소곡 내려산다. 각리각리 촌촌, 동으로 들민 서으로 나고 서으로 들민 동으로 난다. 영 텅기단 보난 천하임전국, 먼 올레 근당이 웨연. 소승이 오라가는구나.

애기씨가 어떻게연 궁 안네서 들으난 원앙소리가 칭칭 나난,

“아이고, 늦인덕수정하님아, 저레 나고 보라. 어떻게난 아버님이 오는 듯, 어머님이 오는 듯. 원앙소리가 남시니.”

허난, 늦인덕수정하님은 나산 보난 아바님도 아니여, 어머님도 아니여. 하늘이 ㄱ득 현 중이 대스님이 오란 샷구나. 강 이제 곱으난

“아이, 아버님도 아니요. 어머님도 아니우다. 하늘 ㄱ득 현 중이 대스님이 오란 샷우다.”

“어디서 나온 대스님이웬 물어보라.”

간 물어보니,

“동계남은 상저절 서계남은 불법당 남계남은 농농절 북하산은 미아 안동절. 절간 지컨 대습네다. 금년 이제도 이 집에 애기씨가 우리 절에 왕 수록 드령 나난, 열다섯 십오세가 멩이 졸란 허난 권제삼문 받아단 멩과 복을 잇어주젠 느렸우다.”

간 애기씨 신디 곱으난, 애기씨가 곧는 말이.

“난 궁 안네 가두왕 잇어부난 느가 나 대신 권제 내어뵙오라.”

“어서 결랑 기영험서.”

늦인덕수정하님은, 은분치에 도곰떨런 권제 내레 가 가난 대스님이 허는 말이,

“아이고, 아기씨 늦인덕수정하님이 웨로 내는 것보다 애기씨 흡으로 내는 게 더 좋을 듯 험네다.”

“우리 애기썬 궁안네 잇입네다.”

“중근 문을 올라주민 권젤 내쿠젠 들어봅서.”

간 곱으난,

“나 웨로 내는 것보단 애기씨 흡으로 내는 게 더 멩과 복이 잇어진덴 험네다. 중근 문을 올라주민 권젤 내쿠젠 허엿우덴.”

허난,

“계건 어서 결랑 기영 허라.”

대스님은 다시 제칭 하늘옥황 도성문 올령업던 천왕낙훤금정옥술발을 둘러받안 혼변을 둘러친다. 두 번 삼세 번을 둘러치니 마흔으담 모람장 서른으담 빗골장 쓰물으담 고무살장 상거슴 통쉐가 왈강실강 올라지어가는구나.

하늘이 보카 청너울을 둘러쓴다. 지에가 보카 백너울을, 흑너울을 둘러쓴다. 아바님

어머님 먹단 쓸 항은 뵈려보난 즘 일엇구나. 애기씨가 먹단 쓸 항은 올안 보난 즘 일듯말듯 헤시난 옷봉이랑 걷어당 천지마늘세 문딱 지식여두고, 아니보던 종이 대스님 얼굴이사 무사 뵈오리야. 백너울을 둘러쓰고 권젤 발안 오라가난, 아이고, 대스님은 확히게시리 흔짝 손은 장삼 쏘곶더레 곱저불고, 찰리 귀는, 흔짝 귀는 입에 물고 흔짝 귀는 손으로 받아간다. 오랑 애기씨가 허는 말이

“대스님아, 흔짝 손은 어디 갓우과?”

“하늘옥황, 옥황에 단수옥갑 짚으레 올랐우다.”

“에미귀라 물엇느냐?”

“부정귀라 물엇우다.”

“부정귀라 물엇느냐?”

“에미귀라 물엇우다. 흔방울이 떨어지민 멩과 복이 떨어집네다.”

영 늦이 들렁 높이 스프르. 쓸을 비와가난 대스님은 찰리귀를 잘락허게 놔 부난 쓸은 문딱 알러레 허겨 부난, 아이고, 이젠 장삼 쏘곶에서, 은수저를 앗아내언 요거 방울방울 문딱 좇읍서. 좇어사주 경 아니민 아니웁니다. 멩과 복이 떨어집네다. 은수저를 앗아내언 쓸방울을 문딱 좇어가난, 난디 엇인 손이 나오란 애기씨 상가메를 썰어가난 애기씨가 꼼짝꼼짝 놀래어간다. 그때에는 정하님이 놀려들멍,

“이중 저중 꿰썩헌 중이로구나. 양반 칩이 권제받으레 못 텡길 중이로구나. 우리 상전님네 알아노민 이제 대동편에 청뎃섭에 목걸려 죽일 중이로구나.”

“아이고, 날 경 옥했주 만은, 날 좇아올 날이 잇일거라.”

잇일거우다. 영 헤영 돌아사젠 허난. 야, 이거 필아꼭절이 잇어지다. 간 이제 장삼귀도 꿰어간다. 가삿귀도 꿰어간다. 철쪽대도 흔 모작 푹이 꺾어간다.

“연문이랑 증가뎡 갑센.”

허난, 옥황도성문 올렁옴던 금정옥술발 둘러봐단 삼세 번을 흔드니 마흔으담 모람장 서른으담 빗골장 쓰물으담 고무살장 문이, 상거슴 통쇄가 증가지어 가는구나. 올라가난, 애기씨는 그걸 본메 본쩍 두엇 잇엇구나.

난데 엇이 석덜 백일이 뵈어가난, 어뎡허난 애기씨가 피일처일 말라간다. 식음전펠 허여가는구나.

“아이고, 이거 어뎡 헌 일이웁?”

허난, 애기씨가 먹단 밥에 굴 내가 낭 못 먹키여. 먹단 국엔 장칼 내가 낭 못 먹키여. 먹단 물엔 펄 내가 낭 못 먹키여. 입단 옷엔 뚝내가 낭 못 입을로구나.

“아이고, 미시거나 먹고적 허짜?”

“들콤들콤 연도레 여미저나 먹고저라.”

아이고, 늦인덕수정하님은 송동바구리 둘러메고 굴미굴산 아야산성 신산곳을 도올라.

“멩천 곶은 하늘님아, 브름 흔 주제 불영 높은 낭에 열매 털어지민 우리 애기씨 멩영 살리쿠편.”

허난, 황금산이 신령이로구나. 브름 흔 주제 부난 높은 낭에 열매가 털어지난 그걸

앗안 오란 썰렁 안네난

“어떻허꽈?”

“높은 낭에 올매라 낭에 낭 내가 낭 못 먹키여.”

“이거 영허당 죽은 상제님 죽어노민 어떻게리.”

헨. 편지답장 올려간다. 천하 베슬 지하 베슬 설렁옵서. 삼 년 살 거랑 석 덜, 석 덜 살 걸랑 열사홀에 느려옵서. 죽은 상전님이 죽게 돼엇우다.

아이고, 우리안텐 귀헌 즈식이난, 여즈식이주마는 귀헌 즈식이로구나. 어떻 헌 일인고. 천하 베슬 지하 베슬 설런 오란. 아바님은 아바님 구덜러레, 어머니는 어머니 구덜러레 들어가는구나.

“어떻허영, 선신문안 가젠허민 어떻게살거니?”

허난, 정하님이 허는 말이,

분상식 은상식 또 드릴 놓자. 초공맛이 험 때는 이 대목에서 분상식 은상식은, 화장을 해예. 앓양, 화장허고 머리 문딱 따고, 다 문딱 곱닥허게 출렁, 부모님신디 선신 가젠 허난,

경 허난 이젠 허영. 분상식도 드릴 놓자. 은상식도 드릴 놓자. 머릴 곱닥허게 빗언
“아바님신 딘 가젠 허민 어떻게코?”

“아바님은 남부모에 여즈식이난 어머니 끝이 몰릅네다.”

풀쎌 저고리 치메 제직정 들어간 선신문안 허엇구나.

“아이고, 나뜰아, 어떻허난 머린 숭부산이 메방석, 눈은 곰방눈, 코는 들똥코, 입은 작박입, 야게는 홍실이 돼고, 베는 테독 끝이 불고, 손은 쉼스렁손, 발은 곰베발이 돼엇느냐?”

“아이고, 아바님 어머니, 천하 베슬 살레가난 아바님도 그림 곱 어머니도 그림곱, 어느 때랑 어머니 아바님 올건 고 궁기로 웨리단 보난, 아이고, 곰방눈이 돼엇우다. 목은 고개 들렁 웨리단 보난 야겐 홍실이 돼엇우다.”

“어떻허난 베는 테독 끝이 불엇느냐?”

“강 오랑 종반양 시켜주켄 허난 흠상식 험 거 돼상식 허단보난 테독 끝이 불엇우다.”

“어떻허난 손은 쉼소롱손이 돼엇느냐?”

“아바님 어머니, 축벼름만 튼단 보난 쉼소롱손이 돼엇우다.”

“어떻허난 발은 곰베 발이 돼엇느냐?”

“어느 날이민 아바님 어머니 오코 동동동 굴리단 보난 곰베 발이 돼엇우다.”

“난 몰르키여 어떻 신디 가라.”

“어떻 신딘 가젠허민 어떻게민 즐거니?”

“여부모에 난 즈식이난 영 험네다. 풀 죽은 치메 저고리 입고 소곡소곡 들어삼서.”
어머니신디 소곡소곡 선신문안입니다 예.

어머니도 아바님과 끝이 똑 끝이 들어보단 아이고, 날로 해 본 일이로구나. 젓가슴을 확허게 열안 보난 퍼렁 헌 심줄이 샷구나.

“이년아, 저년아, 궁안네도 브름이 들었더냐. 청땃섭에 목 걸려 죽일 년이로구나. 앞
밧디 벌통 걸라. 뒷 밧디 작두 걸라.”

죽일 판으로 돌려드난, 정하님이 허는 말이,

“아이고, 애기씨 상전님은 아무 잘못 엇습네다. 나가 보필 잘못이우다.”

“계건 너를 죽이라.”

정하님을 죽이젠 허난 애기씨가 허는 말이,

“놈이 집이 종이엔 허는 건, 돌아다 낡 실푸민 그 날이라도 보내볼민 그만 아니짜.”

문밖 죽이젠 허단, 은대양에 물을 거러다 낡. 그레 젓가락 걸쳐 놓고 앓전 보난 물
골메에 베려보난, 삼성제가 누웠구나. 허나 갈 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목숨이
갈 뻔 허엿구나. 이젠 꼴도 보기 싫다. 나고 가렌 허여간다. 혼 설 두 설 열다섯 십
오세 입단 의복 문밖 내어놓고, 정하님 내어놓고 감은 암쇄 냉,

“혼저 가라. 보기도 싫다.”

“알았수텐.”

허영. 아바님신디 들어 강

“아바님아, 살암십서.”

“나도 어뎡 헐 일이니. 느네 어뎡이 허는 일이여 어쩔 수가 엇저.”

그때엔 금봉드리체를 내어주멍 가당가당 못넘어가는 드리기가 잇건들랑 금봉드리첼
낡 넘어가렌 허여간다. 어머님신디 가난,

“꼴도 보기 싫다. 혼저 나고가라.”

“아바님도 살암십서. 어머님도 살암십서.”

마당 수털 두고 올레 막음 된, 늦인덕수정하님하고 감은 암쇄에 시경 놓고 나고가
는구나 예.

가단보니 강관시에 생초목에 불이 붙으난,

“어뎡허난 강관시에 불이 붙었이니?”

“아이고, 상전님아, 생각허여 봅서. 어느 부모가 즈식을 내쳐 텡 가슴에 불이 아니
붙읍네까. 부모님네 가슴에 불 붙으는 체격입네다.”

영 허영 이제 가단 보니, 물은 이제 우로 알르로 내려살 건디, 알로 우터레, 굴렁에
물이 동산 우터레 올라가난

“이건 어뎡헌 일이니?”

“아이고, 애기씨 상전님아, 즈식이 부물 반대헤 텡 오난, 거은 물 거은드리우다. 영
허니, 거은 물 거은 드릴 넘어간다. 청일산도 넘어간다. 백일산도 넘어간다. 청수와
당 백수와당 넘어가젠 허난 넘어갈 수 엇어지니, 아바님이 내어준 금봉드리첼 내어
드릴 놓앙 넘어가는구나. 가단 보니 수삼천리 낙수와당이 근당이 텡엿구나.

“아이고, 이딜 어뎡헤영 넘어가릴.”

허난. 그때엔 영 앓안 비새 곶이 울단 보난, 무정 눈에 줌이 들언. 엄뜻허난 선좁에
꿈에 선몽을 허는디.

옛날 어뎡 아바님네 천하 지하베슬 살 때, 고스락 땅에 살 때 백강생이 키우단 돌

양오단 물러래 빠지난 거북스제로 환생을 허연 이 거북이가 나오란,

“나 등에 탑서 넘어가게.”

엄뜻허난 깨난 보난 꿈이로구나. 앞이 뵈려보난 거북이가 오랏구나. 거북이 등에 탕수삼천리 낙수와당을 넘어간다. 넘어가니, 그때에는 감은 암쇄 놈이 지장밧디 들어간다. 건지산을 근당허니

아이고, 처녀가 머리폐왕 애기 베영 눈보기 실푸다. 혼 팔즈 그르치젠 그디 앓안, 머리 육갑에 갈라 들영 머릴 올려간다. 비새 곶이 앓앙 울어가는구나. 영 허영 들어가니 당을 들어가젠 허니 열두 문이 잇엇구나. 인정 걸 돈 엇엇구나. 애기씨는 열두 폭 단치메 족족이 브려단 열두 대문에 제 인정 걸언 열두 대문 넘어간다. 종하님이 으답 폭 치멜 입어시난 네 폭씩 갈라 입어가는구나.

“상전님아, 감은 암쇄 놈이 지장밧디 들엇수다.”

“여편 년이 본 말랑 본 디서 브리고 들은 말랑 들은 디서 브리라.”

영 허영, 올라간다. 왕대월산금하늘이 근당허니. 하늘이 그득헌 질이로구나. 지하가 그득헌 질이로구나. 이 질을 어뎡 넘어가리. 금봉드리체 삼세번을 내후리니. 철쭉대 그릇만이 질이 낫구나. 늦인덕수정하님이 올라가명

“조심허영 올라옵서.”

조심드리 넘어간다. 영 허영 올라가니, 높은 절간 법당에서 여례화주 주점선생님은, 앓아 천리 사만이를 둘러보난, 천기를 둘러보니

“야, 소스중아, 저 올레더래 가삭귀도 내어걸라, 장상귀도 내어걸라. 철쭉대도 문딱 내어노라.”

절간 법당 먼 올레 들어간다. 뵈려 보난 가삿 장상귀 철쭉대가 잇언, 맞추와 보난 쟁금쟁강 맞앗구나. 아이고, 이젠 절간 법당에 들어가난, 여례화주 주점선생님이 허는 말이, 후육누육 헐 덴 어느 때랑 좃앙 읍데가 영 허여간다. 그때엔 초나룩 두 동일 내어주명

“요 걸 깡 오민 공이 든 거 아니 든 걸 알쿠덴.”

허난, 초나룩 두 동일 내어주난 앓언 간, 손으로 까젠허난 손톱에서 피가 나고, 입으로 까젠 허난 입에서 피가 나고, 잇몸에서 피가 찰찰 난, 무정 눈에 줌이 들언. 줌 절에 들으난, 하늘엔 부영새 땅아렌 도닥새 안천지에 마늘새, 안 땅에 노념새, 밧땅엔 시념새. 총베기 알롱새, 밥줄이 옥은새 동이바위 앓던 새, 주어 저 새!

영 확허게 일어나명 크게 일어나난, 생이들은 쫄 문딱 까 놓아두고 체는 놀게로 다 불려뵈 가난, 그 초나룩을 앓영가난, 아이고, 공이 들고 지가 들엇구나. 경 허주만은 여기는 절간 법당이라 부베 간을 못 삼양 살거난 불도땅에 느려상 해산허명 살렌허난, 그때에는 아랫녁 불도땅더래 느려사난,

시왕 곱은 연질로 불도땅더래 느려사는 질입네다. 느려사난, 떡을 것도 엇고 허난, 흐루흐루 놈이 집이 삭바농질 허명 혼푼혼푼 모드명 살단 이 애기들 열들과만차난 애기들 솟아나젠 허난 은구월 초으드레가 뵈어가난, 솟아나젠 허난, 알로낫처 아버님이 본디 나간 엇고, 느단 짓격이로 솟아난다. 몸을 곱저 왕이자랑,

신구월 들 열으드레 신맹두가 솟아나젠 허난 알로낫차 아바님 본메본쩐 엇고, 느단 귀더렌 형님이 나오란 웬귀더레 솟아난다. 몸을 곱쨌 웬이자랑, 신구월 쓰무으드레 살아살축 삼맹두가 솟아나젠 허난, 아바님이, 알로낫차 아바님이 본디 나간 엇고, 느단 것갱이 웬 것갱이론 형님네가 나왕 놀랑내 놀핏내가 당천허난, 어머님아, 놀레지 맙서. 오목가슴으로 허우딕속 솟아나는구나. 솟아나난, 초으드레 본맹디도 몸을 곱쨌 웬이자랑, 열으드레 신맹디도 몸을 곱쨌 웬이자랑, 쓰무으드레 살아살축 삼맹디도 몸을 곱쨌 웬이자랑 허여가는구나.

이 애기들 혼 설 두 설 대으섯 설 여남은 설이 웨여가난, 아이고, 양반에 즈식덜은 일천서당에 강 거무선생안티 글을 배우건마는, 우리 집이 아들상제는 가난허고 돈도 엇고 어떻 헨 글도 혼제 못허고 어떻허민 조코. 그 때엔 아들이 허는 말이, “어머님, 걱정허지 맙서. 우리가 알앙 허쿠다.”

경 허난, 이젠 일천서당에 가근에 큰성님은 굴목지길 헤여간다. 셋성님은 물을 질영 오라간다. 배루지길 헤여가는구나. 영 허난 안네서 하늘천 따지 허민 베깃디서 하늘천 따지. 감을현 누를황 허난, 글 동냥을 허여가는구나. 글 쓸 종이 가 엇이난 세성제가 허는 말이,

군대로 굴목에 풀첼 동겨단 손바닥으로 끈끈허게 놀런. 제 우이 글을 썼젠허연. 자꾸 애기들이 오랑보민, 자꾸 옷에 재가 묻영 오난, 재 우이 글을 썼젠, 췌부기 삼성제로 이름 성명을 지왓구나. 지와두고,

이제는 이 애기들이 혼 설 두 설 열다섯 십오세가 넘꼭 성인이 웨연. 우리나라 상시관에 과걸 가젠허난, 양반집 즈식들은 문딱 붓집들 정 과거를 가는 디, 아이고, 어떻허민 조콘허난.

“어머님아, 그자 샅바농질 헨거 우리 세 성제 돈 혼 냥씩만 줍서. 혼 냥씩 앗영 우리가 알앙허쿠다.”

영 허난, 돈 혼 냥씩 반안, 붓집을 등에 지영 일만선비, 일천선비광 우리나라 상시관에 과거보레 가는구나. 가단 보난 절간 법당에, 절간 지킨 대스님이 느려사단 보난, 저 앞이 가는 일천선비들은 과거가민 떨어지고, 뒤에 오는 선비 세 성젠 가민 과거 합격을 헐로구나. 이 말을 일천선비들이 들언. 옛날도 본뽕이도 차가젠 허민 좌우공론이 잇는 법이라. 이 애기덜을 도리 공론을 헨. 저것덜 문딱 배낭 우이 들앙 가근에 강 배 탕오렌 허영 문딱 돌아나불겐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허라.”

배좌수 골 근당허니, 높은 낭에 배로구나.

“너네 삼성제가 올라 강 저 높은 낭에 올라강 벨 다 탕 오민 우리 곶이 돌앙 가켤.”

허난, 사다리법 마련허영 올리고, 올려간다. 아들 삼성젠 양가달에 문딱 배를 그득허게 타 놓고, 느려사젠 베려보난 일천선비덜은 문딱 돌아나명 종이전에 강 종이도 문딱 걸어불고, 붓전에 강 붓도 문딱 걸어불고, 먹전에 강 먹도 문딱 걸영 가부난, 아이고, 아기덜 굶지도 못헤연 다님도 못 클르고 노릴 수가 엇어지난, 황금산에 신

령이로구나. 그때에는, 배좌수 꿈에 선몽을 헤여간다. 청룡 황룡 백룡이 감아지엇구나. 이거 참, 깨난보난 케이현 일이어.

“야, 종하님덜아, 저 배낭 우이강 새라도 흐나 터주지말앙 노려오렌 강 보난, 아들 삼성제가 비새 곶이 울엄시난, 사다리 올려낱 올라간, 다님 클렁 배는 알려레 문딱 털어줘 된 느려산 가난,

“느넨 어평헌 일이넨?”

허난, 사실 말을 곶으난,

“느네 경 허견 글이나 흐 제 써보라.”

글을 쓰니, 천지혼합 천지개벽 천왕베포 지왕베포 인왕베포 상간지 오륜지법을 마련하여 가는구나.

“그만허민 과거 혈 만허다.

돈 닷 냥을 주멍, 흐 사름신디 돈 닷 냥씩 주멍,

“요걸 앓어가근에 강 종이전에 강 종이 사고, 떡전에 강 떡을 사고, 붓전에 강 붓을 사라.”

영 허영

“혼저 제기 가라.”

가단보니 청만주에미가 감아지엇구나. 과거보레 가난디 어평허난 청만주에미가 감아지어신고, 청비게 백비게 얼어비게 틀어비게 마련헌다. 가단보난 동문지긴 동문 잡아불고, 서문지긴 서문 잡아불고, 남문지긴 남문 잡아부난, 이거도 갈디 울디 엇이난 수양청버들 아레 강 잇단, 아이고, 베도 고프고 허난 동문 베끼디레 나산보난 꽃죽 할망 잇엇구나. 그디 강 꽃죽 흐 사발씩 사 먹언 그 날은 하루 즈물앙 할망이 영 말 곧단 이젠 돌아오랑 앓아난 자국에 오란, 수양청버들낭 아레 오랑 즈을 자는 구나.

뒤녁 날은 우리나라 상시관에 과걸 띠와나난, 상시관에서 허는 말이,

“일만 일천선비로구나. 우리나라 상시관 과거 혈 선비가 흐나도 엇엇구나.”

그때에는 꿈에 선몽 드러간다. 어제 왓던 애기들 오건덜랑 밥 병그랙이 백이고, 느네 웨손지 물부름씨 갈 때랑 글 흐 제 썩 상시관 앓더레 무릅 알려레 솔짝허게 노랜 허난. 이와곶이 허엇구나. 웨려보난, 그때에는 상시관이 종이 다발 앓아단 내영 폐완보니

“야, 이거 하늘아래 엇인 글이로구나. 이거 누게 쓴 글이넨?”

허난, 일만선비 일천선빈 그자 눈만 토련토련. 아, 그만히 생각해보난, 요것들 쟈부기 삼성제가 써실거여. 영 허여간다. 이 글 쓴 사름 좃앙오민 과걸 주켤허난, 일만선비 일천선비가 궁문 마당더레 좃으레 가는구나. 강 좃단보난 수양청버드낭 아레 세성제 잇이난,

“혼저 오라. 상시관에서 좃았저.”

좃으난, 강 업데를 허난,

“이거 너네 쓴 글이냐?”

“맞습니다.”

“경 허건 이와같이 쓸 수 잇겠느냐?”

“아이고, 무사 못썩네까?”

큰성님은 입에 물어 흔들만들, 셋성님은 손가락에 접저 흔들만들 죽은아신 발꼬레기 죽전 흔들만들 써간다. 천지혼합 천지계벽 상간지 오륜지법 마련허난, 그만허민 과거혈 만허다. 청일산도 내여주라. 백일산도 내여주라. 검은기 옥단지여 비리단지여 준제 산합 어사화 매화꽃도 내여주라. 장원급제 문성급제 팔도 도자원을 허연 와라차라 느려사젠허난, 일만선비가 허는 말이,

“어떻허난 양반이 즈식덜은 과걸 아니 주고, 중이 즈식들은 과거를 줘네까?”

“너네가 어떻게허연 중이 즈식인줄 알겠느냐?”

“안상록이 도염 칠반상에 술과 꿩기 혼상 잔뜩 출려냥 먼디서 업데행 봅서. 업데행 보민 술과 꿩길 느리민 중이 즈식이우다.”

그와 같이 출려냥. 저 먼정에서 업데헨 베려보난, 상 알러레 술과 꿩길 문딱 내리와 가난 상시관에서 허는 말이,

“왜 너네 술과 꿩길 아니 먹겠느냐? 우리는 이제, 우리 아바지 높은 절간에 법당에서 수륙드런 나부난, 술과 꿩길 못 먹읍네다.”

그때에 술과 꿩길 먹어비어시민 심방덜도, 심방 즈식도 과걸허고, 심방 즈식도 꿩길 먹고 영 혈건디.

(이 대목에 잠깐 말 곶으쿠다예. 이 대목에는 우리 동쪽으로는, 김녕으로 서귀포 중문면 까지는 곱허젠 허민 드세길 못 먹어. 드세기 꿩길 못 먹어. 이 대목에 그때 연관이 웨언. 이 대목에 매알 송당에 소로소천국이 연관이 웬건디, 이 초공본에도 연관이 웨어 이제, 초공본에도 연관이 웨어. 경 허난 그때에 못 먹엇덴 혜영 드세길 못 먹는다, 이 본풀이는 남쪽에만 잇는 본풀이라. 드세기 못 먹는 본풀이는 이).

경 허난 이제 허는 말이, 경 곶으난, 너네 영 과거 못 허여, 과락허영 청일산 거두라. 백일산도 거두라. 어사화 매화꽃도 거두라. 문딱 거뵈오난 연주문이 잇엇구나. 일만선비곶아,

“너네 저 연주문을 맞추민 과걸 주켤.”

허난, 일만일천선비가 연주문을 맞춰봐도 허나도 못 맞추난 허는 말이, 궁에, 췌부기 삼성제가

“우리 과걸 아니 줘도 좋수다. 흥번 맞춰보쿠덴.”

허난,

“경 허라.”

백근 드려 쌀 혼웨를 받아드런 풀따실 동동 건어놓고 큰성님은 우이 맞추고, 셋성님은 아래 맞추고 죽은아신 가운데 과녁을 맞추난 옥황에 연주문이 왈랑실랑 털어 지어가는구나.

“그만허민 과거 혈 만허다.”

다시 청일산도 내여주라 백일산도 내여주라. 준제산합 내여주라. 어사화 매화꽃도

내어주라. 장원급제 문성급제 도자원을 허여 와라차라 놀러들어 가난, 일만선비가 먼저 돌아오란,

그 집이 가네

“야, 종하님아, 너네 죽은상전덜 과거행 오랐이난, 어멍 죽엇젠허영 과걸 물려뒀 오민 너 종반양을 시겨줍이엔.”

허난, 그때엔

“어서 기영 험서.”

물명지 단속곳을 앓양 간다. 분편지를 받아들어간다. 아들 삼성제는 과걸허영 와라차라 놀러들어가니, 갈 때도 청만주에미가 감아지언게 만든 올 때도 청만주에미가 감아지엇구나. 느다들라 연줄 메마. 웨오들라 신줄 메마. 초걸레 이걸레 삼걸렛베를 마련한다. 느려사단 보난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서 만났구나. 아이고, 정하님이 허는 말이,

“험도 허엿우다. 죽은 상전님네야, 과걸 허민 무시걸 허고, 벼슬을 허민 무시걸 험네까?”

“무사 경 험시니?”

“아이고, 큰상전님 죽언 이제도 벌써 짙은 궁에 출병막 허엿수다.”

“어멍 엇인 과거를 허민 무시걸 허리. 청일산도 돌아가라. 백일산도 돌아가라. 준제 산합 돌아가라. 어사화 메화꽃도 든 돌아가라. 어멍 엇인 과거를 허민 무시걸 허리. 우리 어멍, 우리 아방 엇인 애기 키우젠 허난 존심 먹엉 키웠구나.”

두루막 벗언 우뚝지에 걸치고, 행경 벗언 우퍼진 두건 쓰고, 동드레 벗은 머게낭 방장 꺾어단 짙언

“아이고, 데고. 어멍 어멍.”

어멍 좇아간다. 가근에 출병막을 헤쳐보난 물명지 단속곳 잇엇구나. 이게 우리 어멍이로구나. 갈 데 올 데 엇어지난, 이젠 웨하르바님 땅을 좇앙 가는구나. 웨하르방 앞이 가난,

“아이고, 나 즈손 덜 어뎡허연 오란디? 느네 어멍 좇으퀸덜랑 느네 아방 좇앙 가라.”

“우리 아방이 누집네까?”

“황금산 도산땅에 여례화주 주집선생이 느네 아방이여.”

경 허난, 이제 일어산 오젠허난,

“느네 덜 앓아난, 절 헤난 베석자리 앓어가라.”

영 허던 범으로, 옛날도 스갯집인 굻허젠허민 신자리 사오민 심방 굻헤나민 앓엉오고, 심방집이 굻헤나민 유례전득 헤뵈 가는 범입네다.

오단보난 어주에 삼녹거리 궁에 아덜 삼성제 만났구나. 울없이난,

“느넨 누게니?”

허난,

“우린 궁에 아들 삼성젠디 아방도 엇고 어멍도 엇고 췌당도 엇곡 올 데 갈 데 엇엉

이제 이디 앓앙 올없수다.”

“느네 팔즈나 나 팔즈나 똑 같은 팔즈로구나. 요거 우리 어멍 입던 물명지 단속곳 이로구나. 웬 굴로 들엉 느단 굴로, 느단 굴로 들엉 웬 굴로 들어가라.”

궁에 아들 삼성젠, 웬 굴로 들어간 느단 굴로 나온다. 느단 굴로 들어간 웬 굴로 나 오라가는구나.

“느네 이디 앓앙 기다렴시라. 좃앙 올 사름이 잇일거여.”

황금산 도산땅에 올라사난, 여례화주 주집선생님은 이제, 천기를 들런 봉긋상이 출런 앓아시난, 아들 삼성제가 오란 고부제가 절을 허난,

“나는 양반에 아들 둔 유례가 엇우다.”

“아이고, 어뎡허민 아바님에 아덜이 뵈네까?”

“머리 삭발 허여근에 백과염줄 목에 걸고 호롬즙치 지포찰리, 아강베포 메영 절을 올릴 수가 잇겠느냐?”

“무사, 못 험네겐. 아바님 아들만 뵈덴 허민 무사 못 험네겐.”

허난, 삼성제는 데홍대단 고칼로 머털 비어간다. 비새 곱이 올라간다. 혼 침 둘러 굴송낙, 두 침 둘러 비랑장삼 백과염줄 목에 걸고 절을, 이거 지포찰리 아강베포 호롬즙치 웨오 느다 메언 아바님네 절을 허난,

“어, 내 아덜이 맞구나. 어멍 살리젠 허민 양반 풀앙 무관을 삼아산덴.”

허난,

“어멍만 살린 덴 허민, 좃은덴 허민, 그까짓 양반은 못 폼네까. 무관은 못 삼네까. 개 드세긴 못 잡읍네까.”

“경 허건 혼저 불미불산 아야삼성 올라걸라.”

불미불산 아야삼성 신산곳을 도올랏구나. 유저낭은 비어단 마은으답 초간주, 텡저낭은 비어단 서른으답 이간주, 신평낭은 비어단 쓰물으답 하간주를 설련헌다. 들췌 믱작 비어단 아바님 절간법당에 북을 설련헌다. 첫 믱작 비어다근에 올라국 대제감을 설련허여 간다.

허여두고, 이제랑 청물레왔디레 내려글라. 청물레왔디레 내려가난 하늘 옥황에 전명 록이 느렸구나. 느리곡 허난,

“동해용궁 쉼철이 아들 불르라.”

동해용궁 쉼철이 아들 불러단, 아끈 도간 한 도간, 갈메하르방 갈메할망 불러들이라. 하늘 보멍 오랏구나. 하늘 천제를 새겨간다. 물으멍 오랏구나. 물을 문젤 새겨간다. 땅 지제를 새겨간다. 남상잔에 남천문에 새겨간다.

“큰아덜아, 들어볼 말 잇저. 무시거니 좋아니?”

허난,

“도임상이 조읍데다.”

“널랑 초감젯상 받아보라.”

“셋아덜아, 미시거니 좋읍데다.”

“헝경뵈게 좋읍데다.”

허난,

“널랑 신맛이상이나 받아보라.”

“죽은 아들 너는 뭇이 좋더냐?”

“홍포 관디 좋읍디다.”

“널랑 시왕이나 바라보라.”

삼성제가 초체 올려 초공 하늘, 이체 올려 이공 하늘, 삼체 올려 삼공 하늘 올렸더니
니마는 어머니가 눈앞에 엄뜻하게 오랏구나.

“아이고, 어머니야, 읍서 가게. 읍서 가게.”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 느려산. 췍기 췍인, 유즈 췍기 췍인질이로구나. 궁
집을 무어간다. 브름 붙어, 마은으담 초간주, 서른으담 이간주, 쓰물으담 하간주를
설련한다. 브름 분다 브름 뚜벽. 뜻 붙어 뜻 뚜벽. 동산새별 신영 상간주를, 연양육
겹에 동심절에 마은으담 모람장 서른으담 빗골장 쓰물으담 고무살장을 드리고선,
궁집을 무어가는구나.

어떻허민 일천선비 양반이 원수를 갚으코 영 허난, 그때에는

“어머니야, 어머니랑 이 애기덜 우리 보듯 뺑은에 강 이승 삼하늘을 츠질협서. 우
린 저승 삼하늘을 츠질허쿠다.”

경 혜영 가는구나. 가단보난,

남천문 안 유정승에 뜨님애기가 혼 일곱 설에 질레 앓앙 돌세기 자과리 험시난, 육
간제비 돈제비 호름춤치 행 주멩기에 행 허리쿰더레 폭허게 쿰치명, 늘라근에 전생
팔자 굿이렌 허여간다. 아바님 신디 강 골으나네 양반이 잡으레 오는 칼은 으든 닷
단 중인이 잡으레 오는 칼은 일흔 닷단 천민이 잡으레 오는 칼은 서른 닷단이며 심
방이 잡으레 오는 칼은 혼 닷단은 시왕 대번지를 설련헤여 가는구나. 영 허여두고
삼하늘더레 올라간다. 남천문 안 유씨댁 선성님이 열일곱에 눈이 어둑어 쓰무일곱
돌아 탄생 서른일곱에 눈이 어둑언 마흔일곱 돌아 탄생 쉰일곱에 눈이 어둑언 예순
일곱은 나난에 돌아 탄생허연 대천겁을 저울렸구나. 압바른 양 가단보난 아랫녁에
즈부장즈 뜨님애기 들어간 하도 ‘아이고, 대고’ 험시난,

“말 아는 사람 땡겼우다.”

“말을 알민 어떻허고 몰르민 어떻협네까. 우리 애긴 죽언 열두목에 묶언 왔우다.”

첫 올레간 나오젠 허난 하도 섭섭허난,

“맥이나 짚어보쿠다.”

“경 협셴.”

허난, 맥을 짚으난

“겉 맥은 죽어도 속 맥은 살앗수다. 이 상에 쓸 상 낫당 곳을 협셴.”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협서. 계건들랑 헤여줍서.”

허난,

“어떻 출립네까?”

문전더레 허는 말, 비념상을 한다. 연천물 혼 사발을 거러놓고 쓸 혼 사발 거러놓고
상촉권상 피와난, 출려뇌지난 글을 말은 엇고 저 먼 정에 웨려보난 공서엔 현 양반
이 느리고 가신이엔 현 양반이 느리난, 심방들 첫 마디가

“공선가신입네다.”

이 상에 쓸을 싸는 초곱이 이곱이 삼곱이 소곱이 오곱이 육곱이를 놀려두고,
“나 나가건덜랑 이 애기 소왕계꿈 한계꿈 물영 살아나건들랑 남천문 안 유씨대선생
을 좇앙옵서.”

나가 부난 이 애긴 소왕계꿈 한계꿈 물영 살아납네다.

십 년만이 텅기단 어주에 삼녹거리에서 만났구나.

“아이고, 우리애기 살아났우다. 왕 곳을 헤 줍센.”

허난, 그계 엄뜻허게 가슴이 잘락 털어전 시왕 범랑에 잡힌 덴 험네다. 거난 옛날도
심방덜은 어디 강은에게 곳을 허당 심방이 엄뜻허민 시왕 범랑에 잡혀근에강 간 덴
허는 말도 잇입네다.

아이고, 어뎡허민 좋으리. 소미도 엇고 허난, 궁에 어머님을 좇아간 저 집문 베짖디
지곡성 허난,

“저거 누게니?”

“남천문 안 유씨 딱님 애기우다.”

물명지 저정대 걸령 올리라. 대추낭 꽃가마 저울리난,

“백 근이 안참수다.”

“내보내라.”

무당 삼 천제를 내어난,

“이걸 앗아강 다 터득허영 오렌허라.”

무당서 삼 천권을 앗앙 간 터득을 허연. 문 안네 문 베짖디 지곡 허난,

“저건 누게니?”

“유정승딱님 애기우다.”

“부정허다. 서정허다. 향촉권상 위올리라. 삼이 삼서냥도 위올리라.”

물명지 저정대로 걸령 올리난 대추낭 꽃가마 저울대로 저우리난

“백 근이 참수다.”

“이제랑 연반물 치메도 내어주라. 진녹색 저고리도 내어주라. 남수웨지 섭숙퀘지도
내어주라. 퀘지 띠도 내어주라. 홍포판디도 내어주라. 조심 띠도 내어주라. 굴송낙도
내어주라. 대제김 소제김 올랑국 범천왕도 내어주라. 일월 삼맹두 내어주라. 은바랑
즈지바랑 애기 마을꽃 니나논니여. 니나난니나~.”

허여간다. 일흔일곱 나던 해에 아랫 녀에 즈부장즈딱님애기 전세남 허연오란, 삼시
왕에 증명 허엿습네다.

남천문 안 유씨택선성님 놓은 드리로 이날 이때까지 멧 천 년이 웨명 멧 백 년이
웨명 몰릅니다마는 저 즈순 유례전득 유례전득 허명 느려사니, 제주도에 무형문화
재 칠십일호가 된 생기고 영감놀이가 생기고 우리 큰곳 십삼호도 당 생겼습네다.

이것도 삼시왕이 덕입네다. 오늘은 난수생 본수생 과광성 신 풀영 올렸습네다.